

불법 중개 떼다방 '엄단'

군산시, 특별 합동단속... 의심자 경찰 조사 중 적발 땀 최고단계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계획

군산시가 불법 중개행위 특별합동단속 중 불법중개(일명 떼다방)의심자를 신고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2주間に 걸쳐 더샵2차 아파트 분양에 따른 현장 불법 중개행위 특별 합동단속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경찰서, 세무서, 공인중개사협회 군산시지회 등과 합동으로 단속한 첫 사례로, 단속기간 중 이동 불법중개(일명 떼다방)의심자를 신고하는 등 의심자를 단속했다.

지난 17일 오후 2시 경 분양권 계약 체결하고 나오는 방문객에게 접근해

호객행위를 하는 정황을 포착, 떼다방으로 의심되는 자를 더샵2차 견본주택 주변에서 경찰과 공조로 의심자를 단속해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다.

시는 앞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와의 연결관계가 확인되면 관련법에 의해 최고단계(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요즘 LH 관련 부동산 투기관련해 전국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시는 특별단속이 종료된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 있을 은파호수공원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무자격 중개

행위, 외지인 떼다방 등이 군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집중 감시할 뿐만 아니라,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가격담합과 분양권 불법 전매 및 인터넷(군산시닷컴, 부동산카페, 블로그)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행정처분과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산지역 아파트 가격이 전주 시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풍선효과와 거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더샵2차 분양권에 대해 거래약속 문자나 웃돈(프리미엄)을 담합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군산시나 군산경찰서에 직접 신고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소방서에서는 23일 익산시 관내 의용소방대 대장단이 완강기 체험을 했다.

"코로나19도 잡고, 안전도 잡는다"

익산소방서, 의용소방대장단 완강기 실전 체험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에서는 23일 익산시 지역내 의용소방대 대장단이 완강기 체험을 했다

이날 행사는 의용소방대장 7명이 참여하였고, 26일 18명, 29일 5명이 지속적으로 체험할 계획이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했다.

익산소방서 의용소방대는 33개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소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재난 대응활동을 하고, 코로나19 방역활동, 심폐소생술 보급, 산불소심 캠페인 등을 하고 있다.

시민의 곁에서 안전의 파수꾼으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의 대장들이 모범적으로 완강기 체험을 한후 전 대원들과 함께 완강기 체험을 하고 시민들에게 화재대피시에 완강기 사용에 대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오산 남성의용소방대장 김용환은 "화재 등 재난은 언제 어느곳에서나 발생할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 및 대비가 중요하고 시민들께서도 자기안전을 스스로 지킨다는 각오로 자력대피기구인 완강기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미래형 자동차산업 지원'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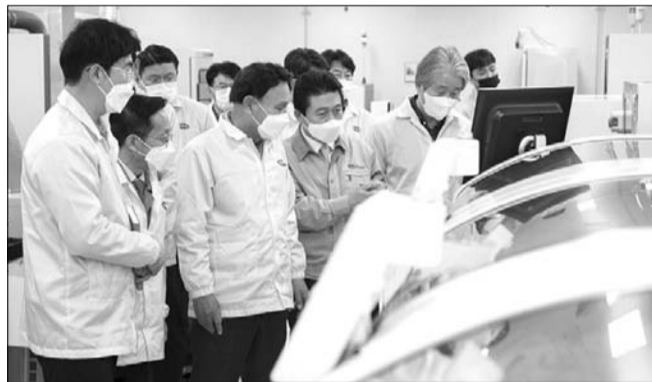
이씨스·자동차융합기술원 방문

군산시가 미래형 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군산공장을 준공하고 최근 생산을 개시한 (주)이씨스(대표이사 김용범)와 이씨스의 투자를 이끌어 낸 자동차융합기술원(원장 이상수)을 찾아 주요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시설을 방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미래형 자동차산업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군산의 지역 경제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업체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융합기술원과 이씨스를 차례로 방문해, 친환경·스마트 자동차산업 육성 및 투자계획 등 성장전략 보고 및 주요 시설들을 살펴봤다.

(주)이씨스는 자동차 전장부품과 자율주행차 무선인터넷장치 전문제조기업으로, 지난 2019년 군산시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산업단지 1만



군산시는 (주)이씨와 이씨스의 투자를 이끌어 낸 자동차융합기술원을 찾아 주요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시설을 방문했다.

9,834㎡ 부지에 35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준공, 올해 1월부터 본격 가동 중에 있다.

또 군산지역 인력을 중심으로 120명을 신규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주)이씨스의 군산 투자를 이끌어 낸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자동차 분야 공인시험기관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군산시의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미래형 자동차산업으로의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 기업 육성과 전문기업 유치 등에 힘을 쏟고 있다. /군산=고병만 기자

익산 중앙체육공원에 공공디자인 접목 센터 조성

익산시는 중앙체육공원에 공공디자인을 접목해 대표 힐링 쉼터로 조성한다.

익산시는 중앙체육공원을 활용한 다이로운 숲속네트워크 조성사업 기본용역 착수보고회를 23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전문가와 지역민, 관련 부서 등이 참석해 공원 활용과 쉼터 조성 방안이 공유됐다.

이번 사업은 전북도 공공디자인 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며 도비 1억4400만원 등 사업비 4억8000만원이 투입된

다. 시는 공원 브랜딩을 통한 가이드라인 수립, 유니버설 디자인 등이 적용된 통합안내 체계 구축, 쉼터와 테마산책로 조성, 노후화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 등을 진행한다.

시는 통합안내시스템을 구축해 공원에 접목시킬 수 있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 '신재생에너지 일자리 매칭데이'

휴먼컴퍼지트 등 4개사 풍력블레이드 제조인력 대규모 채용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가 '신재생에너지 일자리매칭데이'를 개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일자리매칭데이'는 오는 4월 2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군산 에이브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매칭데이에는 국내 유일의 블레이드 제조업체인 (주)휴먼컴퍼지트와 3개 협력사가 참여하며,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열화상카메라 설치 및 마스크착용, 거리두기를 위한 가림막 설치, 대기좌석 및 시간지정 등으로 접촉을 최소화해 진행될 예정이다.

채용규모는 (주)휴먼컴퍼지트 20명, (주)뱅크정밀항공, (주)자리윈드, (주)탑스 각 10명으로 총 50명의 풍력블레이드 제조인력을 채용할 예정으로,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홍보와 구직자 알선, 입사지원 서류접수부터 면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한 매칭데이에 앞서 '들으면 잡

(job)하는 면접특강과 인사담당자 채용설명회'를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대강당에서 운영해 구직자들의 취업역량강화와 (주)휴먼컴퍼지트 인사담당자가 직접 군산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주도하는 풍력블레이드 제조업체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백일성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매칭이 어려운 상황속에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맞물린 해상풍력발전 확대에 의한 풍력블레이드 제조인력 대규모 채용이 침체된 군산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가 군산소재 유망중소기업을 소개하고 중소기업에도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립도서관 3월 시민독서 아카데미

군산시립도서관이 3월 시민독서 아카데미에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를 초청해 특강을 실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립도서관은 오는 30일 저녁 7시 30분에 2021년 시민독서아카데미 첫 번째 특강으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를 초청해 '정의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첫 번째 강연은 영화 <재심>,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의 실제 모티브가 된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 나리슈퍼 강도치사사건', '8차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같이 우리 기억속에 잊혀질뻔한 사건들의 재심을 도맡아 위법 수사 등으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돌이킬 수 없는 사법적 피해를 본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군산=남형봉 기자

익산, 농작업 기계화 지원

익산시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농작업 기계화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농민들의 농작업 기계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한다.

임대사업소는 합일 본소와 동부 본소 2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시는 영농철을 맞아 평일은 물론 토·일요일까지 임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4억9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1종, 75대 농기계를 신규 구입했다. 또 농민 편의 증진을 위해 농기계 세척장 운영요원 2명을 채용해 임대 사용 후 세척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노동력을 해소한다.

시는 또 올해 2억8000만원을 투입해 영세·소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3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사업에 선정된 농업인은 보행관리기, 동력배토기 등 소형 농업기계 구입비용의 50%를 지원(140만원 한도)받게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